



## 2012년 건강보험료 2.8% 인상

최 원 선임연구원

- 보건복지부는 201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2011년 보수월액의 5.64%에서 5.8%로,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1년 165.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.8% 인상하기로 결정함.
- 동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가입자(세대)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 4,105원에서 8만 6,460원으로 2,355원,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 4,821원에서 7만 6,916원으로 2,095원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.
-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요 증가 추세와 2012년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로 보험료율 2.8%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함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재정안정 대책 및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되어 2011년 5.9% 인상 대비 낮은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함.
  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노인틀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,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함.
- 노인틀니의 경우 2009년 6월 발표한 ‘2009~13년 보장성 확대계획’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대상, 본인부담률 50%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를 우선 적용하고,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함.
-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2011년 40만 원에서 2012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.
  
- 한편, 2012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결정으로 2012년 의료수가는 평균 2.2% 인상됨.
- 10월 17일까지 진행된 2012년 의료수가 계약에서 의원(2.8%), 치과(2.6%), 한방(2.6%), 약국(2.5%), 조산원(4.2%), 보건기관(2.0%)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의료수가 인상률이 합의된 바 있음.

- 11월 15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12년 의료수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.7%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.2% 인상됨.
- 2011년 10월 말 건강보험 재정은 8,044억 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, 2011년 말까지 약 2,000억 원 흑자(적립금 1조 2,000억 원 보유)가 예상되나, 2012년에는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으로 재정수지가 1,772억 원 적자(적립금 1조 18억 원 보유)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(내년 건강보험료 2.8% 인상, 보건복지부, 11/15)